

우크라이나 상황을 알려 드립니다

저는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고 있는 박정수 선교사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은 각종 매스컴을 통해서 이미 알고 계실 것으로 사료되는 바 간략하게 설명 드리고 지금 피난민들의 생활상 및 그들이 원하는 것을 알려 드리고 저 합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지난 2월 24일 “우크라이나의 비무장, 돈바스 지역내 러시아인 보호, 우크라이나의 나토 및 EU 가입 저지 및 “중립 유지” 를 목표로 하는 군사 작전을 선언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전쟁은 한 두 달 안에 끝날 것으로 예상하였지만, 전쟁은 어느덧 7개월이 지난 지금은 우크라이나에는 전국민의 3분1에 해당하는 13,000,000만명이상의 사람들이 자기집을 떠나 피난 길에 올랐으며, 해외로 나간 피난민은 약660만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이들 중 상당수의 피난민들은 지금 다시 우크라이나로 돌아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지금의 전쟁 상황은 우크라이나 정부군의 발표에 의하면 러시아군이 낮은 사기와 형편없는 물자보급, 부족한 리더십으로 인해 지지부진한 상태인 반면 미국 등 서방 국가의 지원을 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군대는 우크라이나 동부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인 리만과 남쪽 헤르손 지역의 빼앗겼던 여러 도시들을 다시 수복하며 승전보를 전하고 있는 가운데 많은 우크라이나인 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충분합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국내 상황은 전쟁은 동남부 쪽에서 진행중에 있지만, 키이우를 중심으로 서쪽은 대체적으로 평온한 가운데 일상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0%나 되는 높은 실업률과 직업을 가진 사람들 중에서도 50%이상은 이직을 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물가는 전쟁으로 인하여 물량 수급이 원활히 이루어 지지 않고 있으며, 전 세계적 불황 및 불안한 금융으로 인하여 전쟁 전보다 40% 정도 가격이 인상된 상태입니다. 반면 근로자들이 받는 급여는 우크라이나 화폐의 가치 하락으로 인하여 실질 급여가 약40%정도 줄어든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의하면 전쟁으로 농지와 산업시설, 사회기반시설 등이 파괴되었으며, 이를 재건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제대로 산정하기조차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달, 전후 복구 자금에 약 7천 500 억 불이 소요 될 것으로 추산했는데, 서방 전문가들은 이보다 훨씬 더 들 것이라는 관측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경제에 미치는 파장도 엄청납니다. 당장 흑해를 통해 우크라이나산 옥수수과 밀 등의 수출이 막히면서 세계는 식량 위기를 맞았습니다. 특히 현지 생산이 힘들어 외국 농산물 의존도가 높은 아프리카 여러

국가들은 기아의 위기마저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난 7월, 유엔과 터키의 중재로 곡물 수출이 재개되면서 시장은 차츰 안정을 찾아가는 모양새입니다.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세계 주요 원유국이자 천연가스 생산국인 러시아가 서방의 제재에 반발해 공급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특히 유럽의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고 있으며, 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겨울철을 준비해야 하는 유럽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물가를 안정시키기 위하여 전쟁기간 동안 수입 규제 제품 목록을 정하고 판매자가 이전가격의 10%이상 가격 인상을 할 수 없도록 규제를 하고 있지만 잘 작동되지는 않고 있다고 합니다. 가장 많이 가격이 인상된 품목으로는 연료 및 유탄유가 으뜸이고 그 뒤를 이어서 가전제품, 과일, 생선 설탕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EU 19개 회원국의 인플레이션은 지난 7월의 경우 급등한 에너지가격 때문에 지난 25년 만에 최고 수준인 9%에 달했다고 EU통계기관인 유로스타트가 최근 발표하였습니다. 국가별로는 발트3국의 인플레이션이 가장 심하며, 전반적으로 에너지 수입이 많은 동유럽 국가들의 인플레이션도 심한 편입니다. 러시아로부터 수입이 중단된 에너지 가격은 유럽에서 평균 40%나 급등 하였습니다.

추운 겨울을 앞두고 에너지 가격이 이처럼 급등하자 서유럽 국가들 사이에서는 정부를 원망하는 여론도 조성되고 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은 “연료가격이 4배나 급등하고 식품가격도 올라 자영업자들은 2008년 금융위기보다 심각한 생존위기에 처했다” 고 지난 8월 26일 보도했으며, 가디언은 영국내 보통 가구의 내년 에너지 비용이 5,000파운드(한화로 약800만원)에 달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전하고 있습니다.

서유럽 국가들의 사정도 정도의 차이일 뿐 영국과 크게 다르지 않으며, 인플레이션의 심화로 모든 나라에서 경제지표가 부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겨울에 비싼 난방비 때문에 추위에 떠는 사람들에게 우크라이나를 위해 고통을 감내하라고 설득하기에는 역부족이며 정치적 해결을 촉구하는 압력이 커지고 EU 국가 간에 분열할 우려가 커질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 발표에 의하면 이번 전쟁으로 인한 손실은 3,490억불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 금액은 우크라이나 국민총생산(GDP)의 1.6배가 넘는 금액입니다.

정부는 세수 확충을 위하여 연료 소비세를 부활하였으며 심야 전기를 이웃나라인 루마니아 및 슬로바키아에 수출하기로 합의한 상태입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향후 전쟁 후 대책으로 축산 사육 농장의 수를 증가시키고, 농업 종사자들이 바이오 에너지 사업에 직접 참여하는 계획 그리고 유제품 수출

증가 등 자구책을 내놓고는 있어 희망을 엿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겨울철에 시작된 전쟁은 봄, 여름을 걸쳐 다시 겨울을 맞이하면서 이런 정책에도 불구하고 우크라이나 시민과 피난민들은 혹독한 시련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높은 실업률, 높은 주택비, 높은 생활비는 그들을 더 우울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UN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어린이 3명 중 2명은 집을 잃고 난민이 되었다고 합니다. 집과 나라를 뒤로하고 탈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은 어른들에게도 그 자체로 큰 충격과 공포인데, 우크라이나 아이들은 자신의 집과 마을이 폭격으로 파괴되는 상황, 때로는 더 끔찍한 일들을 직접 목격해야 했습니다.

국경근처 난민 접수 센터를 가보았더니 아이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침묵이 흐릅니다. 아이들은 놀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분명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아이들의 건강과 미래에 아주 오랫동안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트라우마를 어떻게 해결하여야 하는지 아주 큰 숙제 인 것 같습니다.

전쟁초기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에게 많은 관심을 보이던 구호단체 등의 구호품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겨울을 맞이하는 피난민들은 겨울철 자켓, 양말, 내의, 신발, 장화, 충전용 손전등, 양초, 발전기, 겨울철 침낭, 담요, 접이식 침대 및 난방기구, 의약품 등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식료품으로는 통조림 식품, 수프 세트, 귀리, 오토밀, 견과류, 초코릿을 요쳐아고 있는데, 그 이유는 우크라이나 여러 도시 들에는 아직 전기 수도 가스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간편식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생용품으로는 비누, 여성 위생용품, 어린이 위생용품, 남성용 세면용품 등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더 추워지기 전에 폭격으로 부서진 집을 복구하여 주기를 원하고 있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또한, 의약품으로는 고혈압약과 당뇨 약을 제일 원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전쟁하고 있는 군인들은 겨울철 내의, 방한화, 겨울철 군복, 그리고 의약품으로 압박붕대, 지혈제, 알약 형태의 포비돈 요오드, 항생제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우크라이나를 여행 금지국가로 분류하는 4단계가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전쟁은 7개월로 접어 들며 장기화로 가다 보니 많은 교민이나 선교사들의 어려움도 가중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삶의 터전이 그곳에 있고, 생업이 그곳에 있고, 사역지가 그곳인데 지금 그들은 갈 곳을 잃고 허망한 가운데 시간이 멈춘 상태가 되어 버렸습니다. 또한 전쟁이 길어 짐에 따라 먹고 사는데 문제가 생기고, 자녀교육에 문제가 생기고, 주거에 문제가 생기는 등 크고 작은 일들이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실정이지만, 정부는 물론 어느 누구 하나 도움을 주는 곳은 없다 보니 그들의 설움과 원망은 날이 갈수록 더욱 깊어져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하는 “우크라이나 전쟁 대책 위원회”는 향후 전쟁 후 대책에 대하여 다각도로 의견을 모으고 있으며 기본적인 생각은 그들에게 물고기를 줄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키이우에 센터를 설립하여 IT 기술교육, 이 미용기술, 양재기술 등을 가르쳐 주어 그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돕고자 방안을 연구 중입니다. 또한, 한국의 많은 크리스천 중에 건축기술을 보유한 자원봉사자들을 모집하여 전쟁으로 부서진 공공기관, 교회, 개인 집을 보수하여 주는 프로젝트도 구상 중입니다.

한편 학생들을 위한 중고 패드 또는 노트북을 수집하여 초중고 학생들 수업에 도움을 주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으며, 어린이들을 위한 트라우마 치료를 위한 프로그램 개설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가 처한 인도적 위기상황이 그들 만의 위기여서는 안 됩니다. 불과 70여 년 전, 세계 각국 여러 나라는 한반도에서 일어난 전쟁의 소용돌이에서 인도주의 구현을 위한 의료인원을 포함한 많은 구호 인력과 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었다면 한국전쟁은 더욱 참혹했을 것이며, 전쟁의 상처가 회복되는 일도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 대한민국은 국제 인도법의 최대 수혜자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무력충돌의 충격에 빠져있는 우크라이나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희생자를 보호하기 위한 구호의 손길을 보내야 할 때입니다. 평화에 대한 염원, 인류에 회복에 대한 희망을 담아 도움의 손길을 보낸다면 전쟁으로 신음하고 있는 우크라이나인들에게 큰 용기와 희망을 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 전쟁의 아픔에 함께해 주시기를 호소드립니다.